목어

불상과 우상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뜻있는 지구촌 사람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바미안대불을 중무기를 동원해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경악케 했다. 이 불상은 그 문화예술적 가치도 높아 유네스코 등에서는 일찍이 인류의 문화재로 선언했고, 그 보존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극단적 회교주의자들인 그들은 '우상 파괴'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불상을 파괴하는데 광분했다.

불상은 문화재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불자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다. 불자들은 그래서 불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탈레반 정권의 만행을 뼈아프게 여기는 것이다.

얼핏 보면 신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상숭배 배격론'에 불상이 가장 좋은 본보기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불상의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우상'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독선, 파괴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불상은 석가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승인한 일이다. 수행과 불교 전승에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진, 할아버지의 위패는 종이나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패를 바라보면서 고인을 그리워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은 종이나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불상은 불자들이 신행하는 한 방편적 대상이다. 불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처님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안다면, 불교에 대한 오해의 선을 넘어 무지의 극치라 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절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 무조건 맹종할 때 그것을 바로 '미신'이라 한다. '불상 파괴'는 거룩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만행일 뿐이며, '우상 왜곡'의 폐해는 '역사 왜곡'에 견줄 바가 못될 만큼 엄청난 것임을 파괴적 신본주의자들은 물론 지구촌 가족 모두가 깨달을 일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호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인터뷰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스님

"종단 화합 · 안정 최선"

태고종 스님들 스스로가 '창종 이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 자책하고 있는 종단분규의 앙금을 완전히 해소해 화합을 이루고 또 가장 시급한 개혁작업도 서둘러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앞두고 있는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 스님. 스님의 일성(一聲) 역시 '종단화합'이었다. 스님은 "내가 잘 났다기보다 종단화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종도들의 여망을 잘 헤아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종단 안정과 화합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3월 29일 서울 법륜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21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혜초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어제 종회에서도 아직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단 화합을 위한 구상은.

부장책임제 활성화

▲종단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종단개혁추진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하여 화합을 이루고 침체에 빠져있는 종단의 도약 받침대를 마련하겠다. 부장 인선 등도 폭넓게 인재를 수용해 유능한 인물을 부국장으로 기용할 생각이며, 부장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 부장책임제로 총무원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종헌 종법의 재정비도 곧 실시할 생각이다.

—종단이 많은 일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정 확보가 급선무이다. 특히 태고종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은.

▲선암사 경판정대불사 등을 통해 우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적으로도 재산을 출연하여 재정 확보에 힘쓰겠다. 종단이 잘 되는 일이면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난 96년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30~40대 부장 기용, 전국 사찰의 분담금 납부 활성화 등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처들을 시행하다가 중도에 하차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의 일련의 개혁 작업들을 다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승적 업무 등 총무원의 권한을 지방 종무원에 대폭 이양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지방종무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많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빠른 시일내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이 모인 회의를 열고 종단개혁추진위 구성 등 종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후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이다.

지방 종무원 권한 강화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선언한 혜초스님은 "올해 나이가 70인 만큼 종단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생각하고 종단과 불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륜사를 창건한 대륜스님과 현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의 법제자이자 맏제자로서 정통성과 자부심을 갖고 태고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 출생으로 45년 김양택화상을 은사로 청곡사에서 득도, 53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61년 법륜사에서 덕암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과 제17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환경살리기 佛心 뭉쳤다

지리산댐 백지화 '의미'

무조건 비판 넘어 정책 대안 제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해인골프장 백지화 운동으로 성숙된 불교환경운동의 역량이 대사회적으로 회향된 쾌거로 볼 수 있다.

10여년 동안의 불교환경운동이 이제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정부 정책의 결정단계에 앞서 입안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정책 집행을 차단한 것은 불교환경운동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된다.

아울러 일반 환경단체들 역시 불교계의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계기로 중요 환경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동조를 얻어내, 정신적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도 국내 환경운동사상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은 일부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 '머리만 있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대규모 인적 물적 지원은 이런 비난을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은 불교환경운동의 이같은 양적 성장 이외에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적인 변화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6월 동강 영월댐의 백지화 이후 생태계의 파괴를 조장하는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된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 주도로 지난해 8월 결성된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지리산댐 문제를 넘어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는 등 수질 및 수요관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요구, 무조건적인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참신한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98년 9월 지리산 지역의 함양 문정댐과 산청 덕천강댐에 3억8천만톤 규모의 댐을 짓기로 한 후, 뒤늦게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환경을 훼손하는 댐 건설이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 된 것이다.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만들고 물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리산도 살리고 낙동강도 살리는 수요조절 위주의 낙동강수계관리 체계로 전환된다면, 국가적인 환경재난의 예방은 물론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의혹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개발위주의 정부 정책과 정치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내부적인 방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주요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경축행사	청소년 사경공모전	4. 28~5. 12	조계사	파라미타
	웅변대회	4. 29 오후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교웅변인협회
	인수선 관소리 '불타전'	5. 1 오전10시	도피안사	도피안사
	봉고음악제	5. 1 오후6시	조계사 대웅전 앞	조계사
	부처님그리기 대회	5. 5 오전10시	법주사	법신 불공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5. 6 오후1시	목동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5. 13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	연등축제 점등식	4. 18 밤7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	4. 24 밤7시	문화회관 대강당	부산불교연합회
	시민문화축제	4. 28 오후2~6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발전 3천배 참아	4. 28 밤8시~29 오전4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봉축연합법회, 제등행진	4. 29 오후4~9시	부산역 광장~서면	부산불교연합회
대구	연등시연회	4. 5	국채보상공원	한마음선원
	봉축탑 점등식	4. 14	국채보상공원	대구 봉축위원회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4. 20	동화사 통일대불전	대구 봉축위원회
	신행대회	4. 22	갓바위	대구 봉축위원회
	봉황합창단 발표회	4. 22	대구시민회관	대구 봉축위원회
	연등축제, 제등행진	4. 29 오후5시~	두류공원 야구장	대구 봉축위원회
광주	봉고음악제	4. 21	문화예술회관	광주사암연합회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광주	봉축 백일장	4. 22	무각사	광주사암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4. 17	전남도청 앞	광주사암연합회
	연등축제	4. 28	전남도청 앞	광주사암연합회
	연꽃등 만들기	4. 29	광주우체국 앞	광주사암연합회
	5.18 민주영령 천도제	5. 18	망월동 신묘역	광주사암연합회
천안	합동법요식 및 제등행진	4. 28 오후5시~	천안농고	천안사암연합회
	구치소 위문 법회	4. 26	천안구치소 외	천안사암연합회
	군법당 위문 법회	4. 22	제3한악창	천안사암연합회
마산 · 창원	봉축탑 점등식	4. 17 밤7시	육호광장	마창불교연합회
	창원 연등축제	4. 22 오후5시	창원시청 광장	마창불교연합회
	마산 연등축제	5. 1 밤7시	마산종합운동장 사거리	마창불교연합회
	봉축시민가요제	4. 28	마산 내서공원	마창불교연합회
	어린이 백일장	4. 15	창원 용지공원	마창불교연합회
구미	연등법회 및 제등행진	5. 1	금오초교~구미역	구미 봉축위원회
	봉축탑 점등식	4. 15	신평삼거리	구미 봉축위원회
	가로연등 점등	4. 15	1번 도로	구미 봉축위원회
	자애인복지관 위문공연	4. 25	구미장애인복지관	구미 봉축위원회
포천	연등설치 및 점등	4. 16	시내 전역	포천군불교회
	연등축제	4. 28	포천군민회관	포천군불교회
광양	봉축탑 점등식	4. 1	광양로타리	광양 봉축위원회
	제등행진	4. 22	문화예술회관	광양 봉축위원회
안양	거리연등문화축제	4. 26	민안초등학교	안양사암연합회

대한민국 국운융성과 정치 · 경제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 1부 : 불탄일 봉축법회 특별 초청 법어 – 불타사 조실 무허스님

■ 2부 : 보 살 계 수 계 식

전계 대화상 : 대한불교조계종 신원사 조실 **벽암 큰스님**
교수 아사리 :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
칼마 아사리 :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회주 **자용스님**
존증 아사리외 습의사 다수 스님들

■ 3부 : 불 탄 일 봉 축 공 연

경기 명창 **김영임** 외 불자 연예인 다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출연

일 시 : 2001년 4월 15일(일요일), 오후 3시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02-383-0522)
문의 및 접수처 : 02-354-1141, 02-395-1222
주 최 : 신흥사 주관 : 석가사

※ 행사당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신원사,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대한불교조계종 용흥사, 불교방송, 국회 정각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회, 현대불교신문사